

인형극을 통해 공감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담도담 인형극단’

검은 천막 뒤, 어르신들이 인형을 들고 바쁘게 움직인다. 인형의 손과 발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녹음된 목소리와 싱크로를 맞춘다. 인형의 바쁜 몸짓 속에서 다양한 표정과 감정이 읽히는 듯하다. 프로 성우 못지않은 낭랑한 목소리와 활기 넘치는 인형의 움직임으로 한편의 인형극을 만들어내는 이들은 고양시 실버 인형극단 ‘도담도담 인형극단’의 어르신들이다.

글. 박다연 사진. 조병우



인형극을 통해 세대 통합을 이뤄나간다

도담도담 인형극단은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고양시덕양 노인종합복지관이 어르신과 아동 간 1·3세대 통합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고양시 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보육시설에 파견되어 공연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교육적인 주제로 인형극을 구성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창단·운영되고 있는 도담도담 인형극단은 70-80대 노인들로 이뤄져 있어요. 노인일자리를 찾던 중 복지관에서 인형극단을 만들고 이와 함께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지원하게 되었죠. 평소 아이들을 너무 예뻐하기도 하고 손자·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지라 저와 딱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형극단의 팀장을 맡은 송영옥(73) 씨는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 지역의 어린이들과 함께 소통하며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보람된 부분이라고 말한다.

몇몇 구성원들이 바뀌기도 했지만, 대부분 초창기 회원들 그대로 오랜 시간 다양한 인형극을 완성해오고 있는 도담도담 인형극단은 2014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형극 ‘씻, 그건 비밀이에요’와 2015년 고양시 역사탐방 ‘옹어 이야기’ 인형극, 2016년 ‘위대한 이순신’ 인형극을 개발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인형극도 완성할 계획이다. 전문가를 초빙해 발성부터 대본 리딩까지 전 과정을 코칭 받으며, 인형극 한 편 한 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값진 활동

어르신들은 한 달에 10회, 하루 3시간 정도 연습과 공연활동을 병행한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고양시 내에 있는 보육시설을 돌며 인형극을 통해 아이들과 활발히 소통해왔지만, 요즘에는 새로운 인형극 연습을 하며 다시 공연할 날을 기다리는 중이다. 길어지는 공연 공백기에 대비해 인형극을 영상으로 제작해 시 내 보육시설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대본은 전문가가 담당하지만, 연습부터 무대 설치, 목소리 녹음, 인형극 공연 등 일련의 과정은 모두 11명 어르신들이 손수 진행한다. 과정 하나하나 재미있고 보람되니, 힘든 것도 잊은 듯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하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면 이 일을 오랫동안 계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단원들 모두 여가생활과 겸해 인형극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겠지요. 언젠가는 연극제에도 참여해 그간의 성과물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인형이라는 친근한 소재를 통해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이들의 흥미도를 높여 교육적인 내용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도담도담 인형극단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준다는 점에서도 무척 고무적이다.

“매일 매일 활발하게 지내니까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작은 역할이나마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껴요. 인형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저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거든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즐거운 인형극으로 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만들고 싶어요. 앞으로 저희 도담도담 인형극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